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0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24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강민정 · 김성환
김원이 · 박홍근 · 서동용
오영환 · 윤준병 · 이수진
이용빈 · 이정문 · 임오경
정필모 · 홍익표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19년,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,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.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,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.

또한 2021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 수소제거기(PAR)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

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,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5조의3 및 제92조제3항 신설).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관련설비”를 “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고관리계획서의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(이하 “사고관리설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1조제3호, 제12조제5항제2호, 제21조제1항제3호, 제36조제1항제3호,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3호에 따라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3(부적합사항 보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안전관련설비</u> 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15조의3(부적합사항 보고) ---- ----- ----- <u>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</u> <u>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고관</u> <u>리계획서의 사고관리에 필요한</u> <u>설비(이하 “사고관리설비”라 한</u> <u>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92조(장해방어조치 및 보고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2조(장해방어조치 및 보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1조</u> <u>제3호, 제12조제5항제2호, 제21</u> <u>조제1항제3호, 제36조제1항제3</u> <u>호,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3</u> <u>호에 따라 환경상 위해 방지를</u> <u>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</u> <u>준을 초과할 때 그 사실을 지</u> <u>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</u> <u>한다.</u>